

서울 근교로 떠나는 미술관 나들이

집 안에만 갇혀 있기에는 갑갑하지만, 그렇다고 멀리 떠나기에는 부담스럽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거리,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미술관 두 곳을 소개한다.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1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광의 향연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1,2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외관

이름난 건축가들의 건축물이 즐비한 파주 출판도시, 굽이치는 곡선으로 된 건물 한 채가 눈에 띈다. 누렇게 바랜 잔디와 파란 하늘 사이, 마치 하얀 책장이 바람에 펄럭이는 듯 서 있다. 출판사 열린책들이 설립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건축물 자체로 관람객을 끄는 미술관이다. 그 안에 전시된 미술 작품뿐 아니라 이들을 담아내는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이다.

뮤지엄을 설계한 알바루 시자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포르투갈의 건축가다. 대지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명한 콘크리트 건축을 완벽하게 구사해 '모더니즘의 마지막 거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2009년 완공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그의 건축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꼽힌다. 건축가 스스로 이 미술관을 '내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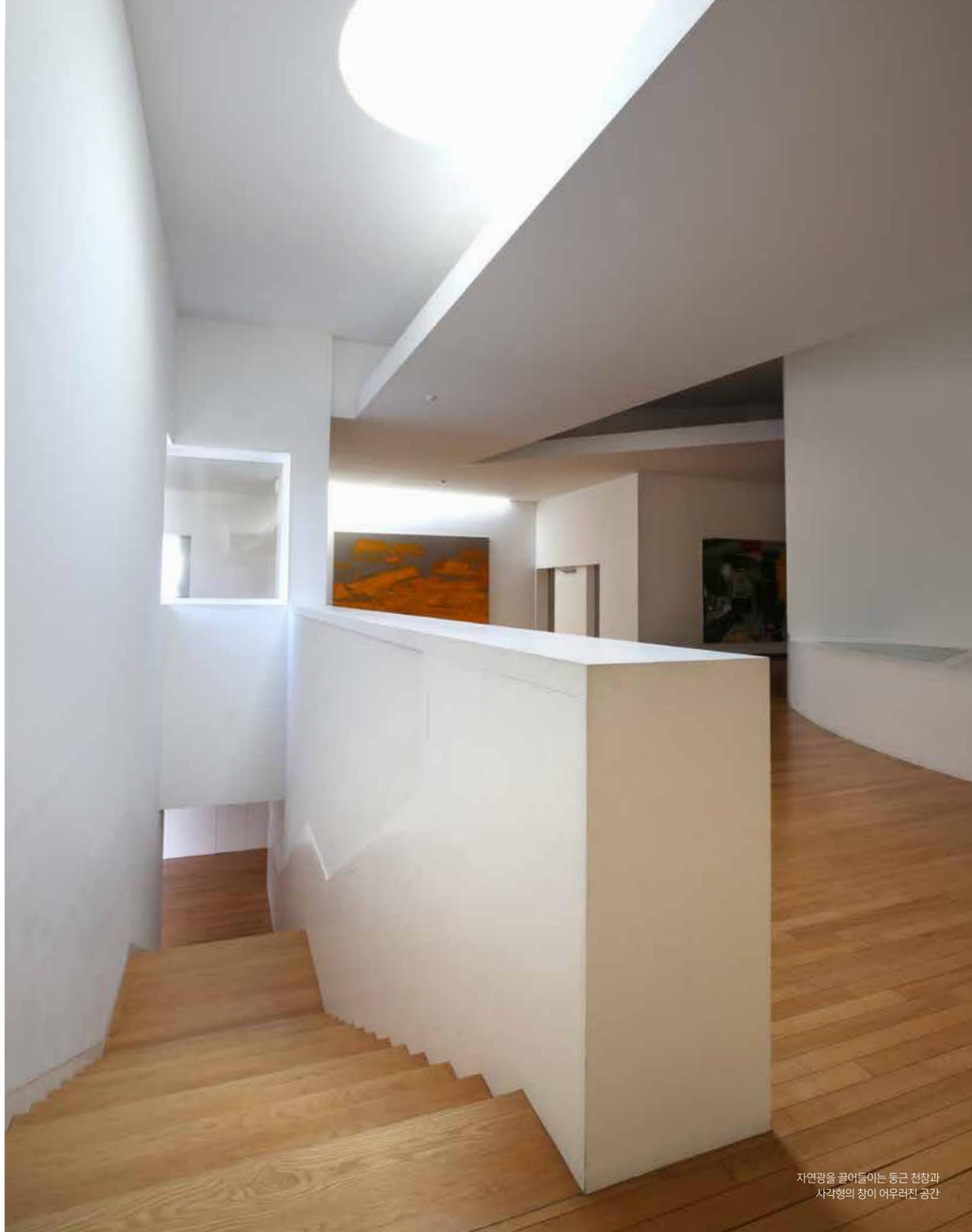


1 단순하면서도 리듬감이 느껴지는 전시장 내부. 점에서 출발한 직선과 곡선이 다양한 형태의 면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로 자연광이 들어온다.

2 인간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탐구한 김윤섭 작가의 작품들. 널브러진 가방이나 빨랫줄에 걸린 수건처럼 널려있는 그림들에서 묘한 해방감이 느껴진다.

건물 외부와 마찬가지로 전시장 내부 역시 온통 흰색이다. 냉난방 장치나 환기 시스템 등 건축물에 필수적인 설비는 모두 보이지 않게 감춰냈고, 미술 작품을 비추는 편 조명도 과감하게 없애 버렸다.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백색의 공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은 직선과 곡선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면과 그 사이 사이로 부딪혀 들어오는 자연광이다. 어릴 적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건축가는 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점, 선, 면, 빛만을 가지고 단순하면서도 리듬감이 넘치는 건축물을 완성해냈다.





1



2



3

1 천장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흰색의 가림벽에 부딪혀 반사되면서 시간에 따라, 또 계절과 날씨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공간을 비춘다. 2, 4 네모난 창에 비친 바깥 풍경은 건축가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작품이다. 전시장 곳곳에 난 창을 통해 사시사철 변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3 온통 흰색으로 된 전시장 내부

핀 조명이 없는 이 미술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살아 움직이는 '빛'이다. 서울의 유명 미술관들을 둘러본 알바루 시자는 "미술품들이 인공조명 아래 놓인 채 농락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1년 365일 똑같은 모습으로 작품을 비추는 인공조명을 부자연스럽게 느낀 그는 천장에 난 커다란 창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을 미술관 내부로 끌어들었다. 네모지게, 혹은 둥글게 난 천창은 대부분 흰색의 벽으로 가려져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로 들어온 햇빛이 가림벽에 부딪혀 반사되면서 시간에 따라, 또 계절과 날씨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공간을 비추고, 이에 따라 벽에 걸린 작품도 시시각각 다르게 보인다. '빛을 조각하는 건축가'로 불리는 그의 진면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4



1, 4 반 고흐를 비롯한 거장들의 모습을 그들의 화법으로 화폭에 담은 김윤섭 작가의 작품들 2 3층에 전시된 박석민 작가의 작품들 3 유현경 작가의 '자금성'

현재 미술관에서는 혼재(MINGLES)라는 주제의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 30~40대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 전시다.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김윤섭 작가는 전통적 회화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못하고 전통 회화를 연구하면서 만든 작품들을 선보인다. 반 고흐, 마티스, 프랜시스 베이컨 등 미술계 거장들을 화폭 속에 담은 그림들이 특히 눈길을 끈다. '순교자-반 고흐의 부활'이라는 작품에서는 어두운 숲속에 좀비처럼 서 있는 반 고흐의 모습이 반 고흐 특유의 터치로 그려져 있다. 작가는 반 고흐를 회화의 구세주, 순교자, 그리고 여전히 현대사회에서 죽지 않고 소비되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좀비'라고 생각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유현경 작가의 '자금성'은 일단 크기로 관람객을 압도한다. 가로 476cm, 세로 312cm에 달하는 화폭에 담긴 노란색의 역동적인 붓 터치는 마치 자금성이 불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불명'을 하면서 떠오른 자금성에서의 추억을 담아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전시장 1층의 북앤아트숍에서는 열린책들이 펴낸 책들을 보고 구입할 수 있다. 미술관 이름인 미메시스는 열린책들이 만든 예술 전문 출판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다.

INFORMATION

운영시간 수~일요일 10:00~18:00
관람요금 성인 5천원, 학생 단체 4천원



2

예술이 녹아든 일상

양평

구하우스



2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구하우스는 갤러리가 밀집된 양평 안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미술관이다. 전형적인 미술관의 '화이트 큐브' 형태에서 벗어나 '집'처럼 전시공간을 꾸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삶과 예술이 하나 된 공간', '예술이 녹아든 일상'이 구하우스가 추구하는 콘셉트다.

전시장 내부는 서재, 거실, 침실, 복도, 다락 등으로 명명된 10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공간은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으로 꾸며져 있다. 벽에 걸린 그림뿐 아니라 무심한 듯 놓인 의자와 테이블, 거울, 조명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예술품이다. 관람객들은 마치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가서 구경하듯 편안한 마음으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각 방과 복도를 지나며 작품을 찬찬히 감상하다 보면 '우리 집에 이 작품을 들여보면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된다.

1 구하우스에서는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천장에 걸려 있는 작품은 조아나 바스콘셀루스의 'The Weird of Oz'
2 프린트 룸에 전시된 작품들 3 이미지를 합성해 만든 '룸(?)'과 소파에 누워 잠든 소녀를 조각한 '슬리핑 걸'. 벨기에 작가 한스 움 드 빅의 작품이다.

February 2021



3



서재처럼 꾸며진 전시공간. 서가에 꽂힌 미술 서적을 꺼내 소파에 앉아 볼 수 있다.



1



2

1 미술관 외벽에 걸린 무지개빛 네온 조각은 우고 룬디노네의 작품, 'BIG MIND SKY'라는 글씨가 성 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색과 만나 포용과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전달한다. 2 신체가 없는 남성 정장이 역동적인 자세로 서 있는 조각품은 어윈 윌의 'Big Disobedience'.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저서 '시민 불복종'에서 영감을 얻었다.

컬렉션도 예사롭지 않다. '현존하는 가장 비싼 미술가'로 꼽히는 데이비드 호크니부터 데미안 허스트, 장 프루베, 앤디 워홀, 제프 쿤스, 막스 에른스트, 다니엘 뷔렁, 서도호에 이르기까지 21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의 작품들이 10개의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약 400점에 달하는 방대한 컬렉션은 디자인회사 '디자인 포커스'의 구정순 대표가 40년간 모은 소장품이다. 미술에 문외한이라도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주요 작품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달아놓아 누구나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서재를 콘셉트로 꾸민 3번방은 구하우스 안에서도 가장 집 같은 느낌이 들어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장소다. 장작불이 타는 벽난로 옆 소파에 앉아 서가에 꽂힌 다양한 미술 서적을 꺼내 볼 수 있다. 서재를 대표하는 작품은 자비에 베이앙의 '모빌'(르코르뷔지에)이다. 동그란 안경을 끼고 손에 담배를 든 남성과 담배 연기를 상징하는 공중의 동그란 모빌을 통해 애연가였던 근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를 오마주했다. 방탄소년단의 RM도 팬이라는 조지 나카시마의 나무 의자 '코노이드 체어'도 이 방에서 볼 수 있다.



1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예술가로 꼽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Pictures at an Exhibition' 2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장 푸르베의 작품과 그 시대의 빈티지 가구들을 게스트룸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공간. 방 안의 가구들은 '기능에 충실한 아름다운 가구'라는 푸르베의 디자인 철학을 잘 보여준다.



3, 6 '거장들의 에디션' 기획 전시에서는 키스 해링, 앤디 워홀, 키키 스미스 등 현대 미술 거장들의 에디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4 인간의 관음증적 시선을 다룬 어윈 올라프의 설치작품 '키홀(Keyhole)', 양쪽 문의 열쇠 구멍을 통해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광경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5 다니엘 뷔렝의 설치작품. 다양한 각도로 부착된 거울이 공간과 관람객을 비추며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예상치 못한 다양한 광경을 만들어낸다.

거실을 콘셉트로 한 5번방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최신작인 'Pictures at an Exhibition'이 눈길을 끈다. 호크니의 작품이 걸린 그의 LA 스튜디오 안에서 사람들이 그림을 감상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거대한 화폭 안에 담겨 있다. 이 작품은 각기 다른 날짜에 스튜디오를 방문한 지인들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디지털 합성해 대형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수많은 시점의 이미지를 조합한 이런 작품들을 통해 작가는 회화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한순간의 광경으로 규정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6~7번방에서는 현대 미술 거장들의 에디션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장들의 에디션' 전시가 올해 첫 기획전시로 열리고 있다. 캠벨 수프 통조림과 메릴린 먼로의 이미지를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대량 제작하고 작가의 '서명'과 '넘버'를 붙여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문 앤디 워홀의 작품을 비롯해 파블로 피카소, 르네 마그리트, 조지 시걸, 키키 스미스, 클래스 올덴버그 등 거장들의 에디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

INFORMATION
 운영시간 목·금요일 13:00~16:30
 토·일·공휴일 10:30~17:30
 관람요금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6천원, 어린이 5천원

